

수학보고서

2011년 CSU Fresno 파견장학생 국제통상학과 박동권

저는 기숙사생활에서도 특히 Community Style Living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Community Style Living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숙사 형식입니다. Community Style Living에도 double room과 large single room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double room은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것이고, large single room은 혼자서 double room 크기의 방을 쓰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large single room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기숙사 계약을 늦게 한다면 구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Community Style Living에는 Baker hall, Graves hall, Homan hall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기숙사 신청서를 작성할 때 평소 잠자는 시간, 흡연여부 등을 체크하는 칸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hall과 룸메이트가 정해집니다. 보통은 OT때문에 학기 시작보다 며칠 일찍 도착하게 되는데, 기숙사계약이 학기 시작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Atrium에 가서서 추가비용을 더 내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을 내더라도 방은 쓸 수 있지만, Dining hall에서 식사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 Community hall 중 하나인 Homan Hall



기숙사에 들어갈 것이라면 딱히 한국에서 준비해 올 것은 입을 옷과 개인적인 물품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불과 옷걸이 등 필요한 것들은 학교주변의 Wal-Mart에 가서서 거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전을 가져오셔서 쓰려면 Community Style Living에는 무선인터넷만 되기 때문에 Residence Suite Living을 선택 하시거나, Community Style Living에 들어오셔서 따로 인터넷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룸메이트가 원래 자기부담으로 인터넷을 쓰고 있어서 각자 절반씩 부담하고 썼었는데 룸메이트와 상의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무선인터넷을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속도가 매우 느리고 Nate메일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마다 공용세탁기가 있는데, 세탁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습니다. 사용하려면 중도에 프린트를 이용하듯이 카드를 사서 이용할 수 있는데, 카드는 한번 사면 계속 충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금은 세탁이 1.25달러, 드라이가 1.00달러입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보통은 일주일 동안 빨래거리를 모아뒀다가 한번에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드라이의 성능이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두꺼운 옷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마르지 않고, 수건이나 양말 같은 얇은 세탁물도 제대로 펴서 놓지 않으면 제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 double room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넓다.

기숙사 내에는 기숙사식당인 Dining hall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숙사 신청서에 작성을 할 때 Meal Plan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한 Plan에 따라서 제공되는 식사횟수와 쿠폰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Plan을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현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가격이 한끼에 평균 9달러 정도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스스로도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Echo box라는 박스를 받게 되는데, Dining hall에서 밥을 먹고 이 Echo box에 그 날 나왔던 음식, 쿠키 등을 담아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Flex를 신청해서 저녁을 먹으러 갈 때 Echo box에 다음날 아침을 담아와서 먹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의 전반적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사무실인 ATRIUM

마지막으로 기숙사를 등록해서 처음 Atrium에 가면 카드를 주는데, 그 카드가 키입니다. 그 키를 이용해서 hall이라던가,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학기가 시작하고, 학생증을 발급받으면 학생증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이 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드를 잃어버리면 3번까지는 임시 카드를 빌려주지만,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3번 이상 잃어버리면 25달러를 주고 다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숙사 생활은 Apartment에 사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단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Apartment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제를 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고, 학기가 끝나는 날에 바로 방을 빼는 점, 요리를 할 때에도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된다는 점, 인터넷이 불편하다는 점 등 처음에는 불편한 점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점차 적응이 됩니다. 기숙사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숙사 홈페이지인 <http://www.universitycourtyard.org/>에 거의 모든 정보가 있으니, 들어가서 먼저 확인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